

# “일상 속에서 경험한 ‘차 이야기’ 담았어요”



‘차(茶)문화 이야기’  
김은숙 지음/카이로스/ 1만5천원

30여년 차 전문가 김은숙 가은다레원 원장  
본보 연재 글 포함 40편 에세이 엮어 출간

“대중들이 ‘차(茶)’를 떠올리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다례(茶禮)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차는 그저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친근하게 즐기는 것인데 말이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고, 차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이 책을 펴냈습니다.”  
김은숙 가은다레원 원장은 최근 자신이 수년간 써 온 에세이를 엮은 책 ‘차문화 이야기’를 출간했다.

차와 사랑에 빠진 김 원장은 30여년간 다도와 다례 뿐 아니라 염색과 다식 등까지 두루 섭렵한 차 전문가다.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가은다레원을 운영하는 김 원장은 ‘1인1차살’ 문화를 지향한다. 마음을 다 해 정성껏 우려낸 차, 그리고 그 정성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 마시면서 소통하는 문화가 생겨난다는 지점에서다.  
이처럼 차에 대한 김 원장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풀어낸 것이 이 책이다.  
책은 ▲1장 차가 맺어준 좋은 인연들 ▲2장 ‘차 바보’는 자연에서 기다린다 ▲3장 예술로 승화시킨 제다 ▲4장 미학 속에 담긴 그 실용성 ▲5장 차, 세월 앞에 품격으로 익어가다 등 총 5장으로 나뉘며, 40여 편의 에세이를 담고 있다.  
차와 삶 이야기, 차를 좋아하게 된 계기, 차의 매력, 건강에 효능이 좋은 차, 다도와 다례, 제다 체험 등 다채로운 주제로 글을 써내려갔다.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읽기 쉽게 쓴 글이 특징이다.  
김은숙 원장은 “틈틈이 써 왔던 에세이집이 책으로 만들어지고 난 후 가슴이 벅차서 한참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읽었다”며 “이 책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보다는 우리 차를 즐기고 향유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은숙 원장은 원광디지털대 차문화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차문화대학원을 수료했다. 데일카네기클럽 제6대 회장, 제6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아카데미 다도회 회장을 맡았다. /정겨울기자



## 본보 신춘문에 등단 박응순 작가, 첫 소설집 출간



‘저녁과아침 사이’  
박응순 지음  
문학들  
1만2천원

1997년 ‘광주매일’ 신춘문예로 등단한 박응순 소설가가 첫 창작집 ‘저녁과 아침 사이’를 출간했다.  
박 작가의 창작 시원은 ‘바다’이다. 첫 소설집인 ‘저녁과 아침 사이’에 실린 총 7편의 작품 중에서 중편 ‘썩대머리가 들린다’를 제외한 나머지 6편이 모두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 배가 있었다”에서 가로등이 서 있는 물막이 장소는 박응순 작가의 고향과 인접한 고흥 앞바다다. 바다를 돈으로만 보는 외부 사람들(양식업자)과 그 돈에 현혹되어 고향 바다를 등진 마을 사람들에게 맞서는 정수의 아버지는 고향 바다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마지막 양식업자 자신의 생명력을 끝까지 사수하려는 바다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결국 인간의 탐욕에 정수 아버지가 수장되고 마는 것처럼, 바다 또한 황폐해지는 씁쓸한 결말에 가닿는다.  
표제작 ‘저녁과 아침 사이’는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 다시는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기로 결심한 잠수부 형구의 이야기다.  
“그 사람들 만나려고 나서는 건 아니지?”라며 병원 침대에 누운 채 팔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아내의 예잔한 눈빛이 형구를 저녁과 아침 사이의 시간에 갇힌 새까만 바다로 이끌었다. 섬과 섬 사이에는 운통 양식장만 있고, 남의 이복을 속여야기에 랜턴의 빛조차 허락하지 않는 캄캄한 바다. 그리고 침입을 허락하지 않는 듯한 거친 파도. 주인 몰래 키조개를 쓸어 간다는 소문 탓에 쫓겨났던 그 바다로 형구는 새까만 잠수복을 입고 뛰어든다. 탐욕으로 황폐화되는 바다, 아버지의 고향으로 왔으나 상처만 안고 떠나는 사람, 위치를 잃고 만년설로 향하는 배, 태어날 생명을 위

해 다시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잠수부까지. 바다와 인간을 향한 맑고 정직한 눈이 살아 꿈틀거리는 서사를 낳았다.  
층층의 바다를 건너 마지막 작품에 도달하면 중편소설 ‘썩대머리가 들린다’가 기다린다. 자신의 생명이기도 한 바다를 고향처럼 생각하는 박응순 소설가에게도 나올 수 있었던 이 중편소설은 비록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고향 땅의 절절한 목소리를 담고 있어 필독을 권한다.  
박응순 작가는 보성에서 출생, 여수수산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항해사로 일했다. 1997년 ‘광주매일’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광주대 문예창작과에 편입해 문순태, 유순영 선생에게서 소설을 배웠다. 광주전남소설가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정겨울기자

## 문체부, ‘1인 미디어 창작자 저작권 안내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1인 창작자, 관련 협회, 기획사 등에 배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문체부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면서 저작권 분쟁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 1인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

적권 침해와 그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에는 창작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게임,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처리 방법을 이용 상황과 저작권 유형별로 설명했다.

주요 유형별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비상업적·공익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사례 ▲이용 허락을 안 받아도 저작권 문제가 없는 유형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안내서는 문체부(mcs.go.kr), 한국저작권위원회(copyright.or.kr), 한국저작권



권보호원(kcpra.or.kr) 누리집에 있다. 문체부 저작권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주요 사례를 짧은 영상으로 소개한다.  
아울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게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한다. /연향뉴스

### 새로 나온 책



▲감정조절 안 되는 아이와 이렇게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 노라 임라우 지음, 장혜경 옮김.

독일의 자녀교육 전문가인 저자는 감정조절을 못 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아이를 부모가 비정상적으로 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방법을 들려준다. 효과적인 대화법만 익히면 골칫덩어리이던 아이의 고집도 열정과 몰입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 제인 구달, 토머스 에디슨 등 감정이 격했지만 부모의 지지로 훌륭하게 성장한 유명인들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이에게 건넬 수 있는 말과 대화 예시, 성향별로 아이에게 접근하는 효과적 방법 등 육아에 지친 부모에게 실용적인 팁을 알려준다. /김영사·1만4천800원.



▲정치는 어떻게 시간을 통제하는가 = 엘리자베스 F. 코헨 지음, 최이현 옮김.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에서 시간의 의미를 탐구한다. 국가는 합법적으로 국민의 시간을 통제하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일정한 연령이 돼야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고 범죄를 저지르면 일정 기간 자유를 박탈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귀화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그 나라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시간이나 기간에 정치적 의미가 부여될 때 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바다출판사·1만6천500원.



▲세상을 바꾼 길들임의 역사 = 엘리스 로버츠 지음, 김명주 옮김.

고고학, 언어학, 역사학, 지질학을 넘나들며 ‘길들임’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야생의 씨앗과 들판의 동물이 인류에게 중요한 협력자가 되기까지 경로를 살펴본다.

우리는 밥과 빵, 닭고기와 소고기, 우유와 치즈를 매일 먹으면서도 수많은 야생 동식물 중 왜 쌀, 밀, 닭, 소 등이 인간의 주요 먹거리가 됐는지는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야생에 흩뿌려진 씨앗을 경작하고 들판을 떠돌던 동물을 길들인 덕에 인구 증가와 문명의 성장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인류와 길들여진 종이 어떻게 상호 의존해 왔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진화에 관해 많은 비밀을 밝혀 줄 수 있다. /푸른숲·2만5천원.



▲꽃은 알고 있다 = 퍼트리샤 윌트서 지음, 김아림 옮김.

50대의 나이에 과학수사의 세계에 뛰어들어 수많은 범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법의생태학 선구자가 자연, 특히 식물이 제공하는 범죄 단서를 활용해 수사의 실마리를 찾은 사건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폐쇄회로(CC) TV가 범죄자와 피해자의 흔적을 간직

하는 것 못지않게 꽃가루와 미생물, 곤충 등 각종 동식물과 흙, 모래 등도 추적의 단서를 제공한다. 대학에서 식물학을 공부한 저자는 환경고고학자로서 영국 전역을 누비며 고고학 발굴 현장의 과거 환경을 재구성하는 일을 하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살인 사건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 살인 사건 용의자들이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 이동했음을 규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용의 차량의 꽃가루 성분을 분석해 사건 해결의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했고 마침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데 기여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6천500원.

### 【원룸, 빌라, 주상복합부지】

- 1) 오치동 2종주거 6미터 대302㎡ 급매5억 (3.3㎡당549)
- 2) 두암동 2종주거 8미터 대281㎡ 급매4억 (당470)
- 3) 북동 중심상업 4미터 806㎡ 급매12억2,000 (당500)

### 【다용도 토지】

- 1) 하남산단 공업지 10미터코너 8,265㎡(3.3㎡당200)
- 2) 화순 의로단지실 전원단지조성지661㎡(3.3㎡당 45만원)
- 3) 지원동(월남)도점 주거1종 3,222㎡(3.3㎡당 350만원)
- 4) 장성,산정리 도점 주거1종외9,900㎡(3.3㎡당 40만원)
- 5) 신가동 도점 주거1종7,000㎡(3.3㎡당 250만원)

### 【월세많은 빌딩】

광주역앞 병원상업지838㎡5층건물 승강기2,주차20  
급매24억3,000(보1억 월1,800만원)

\*\*\*상가빌딩, 모텔, 가든, 나대지  
지방, 섬망등 투자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현대공인중개사

치평동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 370-1900 📱 010-2006-0115

〈 광주 인근 지역 매매 물건 구함 〉

(장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곡성)  
물건의 종류 : 건물 / 대지 / 임야 / 전답 / 기타

〈 광주지역 매매 임대물건 구함 〉

물건의 종류 : 건물 / 토지

〈 급매물 단 시일 내 책임중개 〉

대표 공인중개사 김학제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내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